

'300만 관광임실의 시대'

임실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관광 발전 로드맵 마련

임실군이 '300만 관광임실의 시대'로 발돋움 하기위한 청사진을 착각 그려나가고 있다.

군은 28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문가 및 연구진, 실무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갖고, 임실군 관광발전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임실군이 '300만 관광임실의 시대'로 발돋움 하기위한 청사진을 착각 그려나가고 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관광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핵심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를 위해 군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전북연구원에서 계획안 수립을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임실군 관광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와 추진 전략의 기초자료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임실군의 핵심 자원인 옥정호, 성수산, 임실N치즈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명소 거점구축과 융복합 관광자원 개발 등 4대 핵심 전략사업도

출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전주대 최영기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관광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임실군은 지난 해 45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를 기점으로 300만 관광시대의 불포를 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사선대 관광지, 오수의견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옥정호는 에코뮤지엄 사업 등을 통해 종합관광개발특구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오감만족 체험관광지로, 성수산은 국민생태관광지로 각각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쌀 적정생산 추진단 회의

순창군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한 쌀 적정생산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지역내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7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협중앙회 순창군 농정지원단,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쌀 적정생산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변경 지원과 중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 했으며 쌀 수급안정과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규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업인들이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의 올해 논 타작물 목표면적은 362ha로 12억 3천만원이 지원된다. 사료작물은 ha당 400만원, 일반작물·꽃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신규로 논농 재배 및 수매하는 경우 280만원에 유통장려금 100만원을 더해, 총 380만원이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통해 11월 중 지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30일까지 신청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ha 이상 ~ 0.5ha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자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식,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m당 150원으로 15만원 ~ 75만원을 지원 받게되며, 단 농업의 소득이 연간 5,922천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317농가에 116,12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70세이상 0.5ha이하, 농외소득 5,922천원 이하로('17년 71세이상 0.4ha, 농외소득 연 5,000천원) 대폭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며, 사업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하여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지역문화 탐방 첫발

순창군과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가 지역문화 탐방 프로그램의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28일 육군기계화학교 오광세(소장) 학교장을 비롯한 간부진 30여명이 방문해 강선산 등 순창의 대표 문화관광 코스를 답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28일 순창군과 육군기계화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후 지역문화탐방을 위한 첫 번째 공식 방문이다.

이날 오광세 소장을 비롯한 일행은 순창 발효산업의 대표시설인 대상공

장 견학과 대표 문화관광지인 강선산 등을 답사하고 지역의 현황과 문화관광지의 특성을 아는 시간을 가졌다.

육군기계화학교는 간부와 병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지역의 전적지와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 장성군에 있는 상무대는 보병과 포병은 물론 기계화(기갑), 공병, 화학 등 5개 전투병과에서 연간 3만명 이상의 육군 간부와 병사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군은 앞으로 상무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양측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춘향제, 자원봉사자 모집

춘향제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제88회 춘향제에 시민과 자원봉사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월 1일까지 남원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88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우리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로서 그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고장 남원을 홍보하는 데 최일선의 일꾼 역할을 맡아 왔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춘향제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 각종 행사안내 및 남원홍보와 미아보호, 음료봉사, 축제장 교통질서유지 및 통제 등을 통하여 편안하고 질서정연한 축제가 되도록 봉사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자원봉사단의 분야별 실무교육 및 발대식은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춘향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제88회 춘향제를 질서정연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시민,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군, 귀농인 기초영농 교육생 다음달 6일까지 모집

임실군이 귀농인 기초 영농교육을 추진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희망)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정보 제공하기 위해 귀농인 기초영농 교육생 30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귀농인 기초영농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기초영농기술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지역여건과 본인 능력에 맞는 사업선택으로 조기에 농촌에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다음 달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심야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귀농귀촌인 및 임실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기간 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이메일(e-mail)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실시하는 귀농인 기초영농교육은 매주 1회씩 기초영농 기술정보, 귀농귀촌 사례,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농업의 이해 등을 전문강사를 초빙해 총 10회 30시간을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숲속 힐링명상관 쉼랜드 조성사업 '훈풍'

수변공원·산야초공원 등

순창군이 숲속 힐링명상관을 완공하고 본격 활용에 들어가면서 쉼랜드 조성 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쉼(SHIL)랜드는 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 of 약자로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을 휴식과 치유를 융합한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다.

순창의 좋은 물을 활용한 스파시설은 물론 황토방갈로, 명상관, 음용수시설, 벽천 등을 갖춘 워터공원이 들어선다. 또 산책로와 시냇물 등을 갖춘 수변공원, 산야초공원 등 독특한 힐링관광 시설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특히 일반 관광객은 물론 만성질환자 등이 머물며 치유와 관광을 함께 즐길수 있도록 특화 개발을 통해 치유개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2019년까지 총 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쉼랜드 사업 전체 진척율은 46%를 나타내면서 순항하고 있으며 최



순창군이 숲속 힐링명상관을 완공하고 본격 활용에 들어가면서 쉼랜드 조성 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근 명상관이 먼저 완공돼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총 120㎡ 규모로 2억 7천만원이 투자된 숲속 명상관은 인계면 생암리 건강장수연구소 산림욕장에 완공됐다.

숲속의 맑은 공기와 새소리 등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빛의 여과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명상관 건립과 함께 건강장수체험

과학관, 의농업체험관, 식생활실습관, 힐링산책로 등 건강장수연구소 주변 시설이 속속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쉼랜드 주변 관광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또 꽃잔디, 봄꽃 식재로 주변 경관이 입소문을 타면서 군민들의 방문도 꾸준히 늘고 있어 군민 쉼터로도 자리잡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바버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니스	